

시민체감형 울산시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이영란(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 여성친화도시(gender equality region)는 모든 지역 정책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현하는 성평등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함
- 여성친화도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정책이며 최소한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경우 울산중구만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유일함
- 이에 본 연구는 울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산하고 울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울산 시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FGI 등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시민체감형 울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① 지역 환경 인프라에 대한 울산시민의 만족도

- ▶ 울산시 5개 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와 관련된 지역 환경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 ▶ 조사 내용은 ① 일자리 및 돌봄 환경, ② 거주환경, ③ 안전환경, ④ 문화환경, ⑤ 공동체 형성 등에 대한 만족도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I 일자리 및 돌봄 환경

- 일자리 및 돌봄 환경 만족도 총 6개 문항에서 평균 3점을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남
- ‘고립되지 않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의 항목이 2.5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일자리 및 돌봄 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여성이 취·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충분하다

2.68

취·창업 관련 직업교육훈련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2.70

취·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2.71

정해진 시간 외에 급하게 돌봄(자녀, 노인부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시설이 있다

2.73

돌봄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66

고립되지 않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2.55

I 거주 환경

- 거주환경 만족도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 평균 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유모차(유아차)나 휠체어 등이 다니기에 어려움이 없다’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임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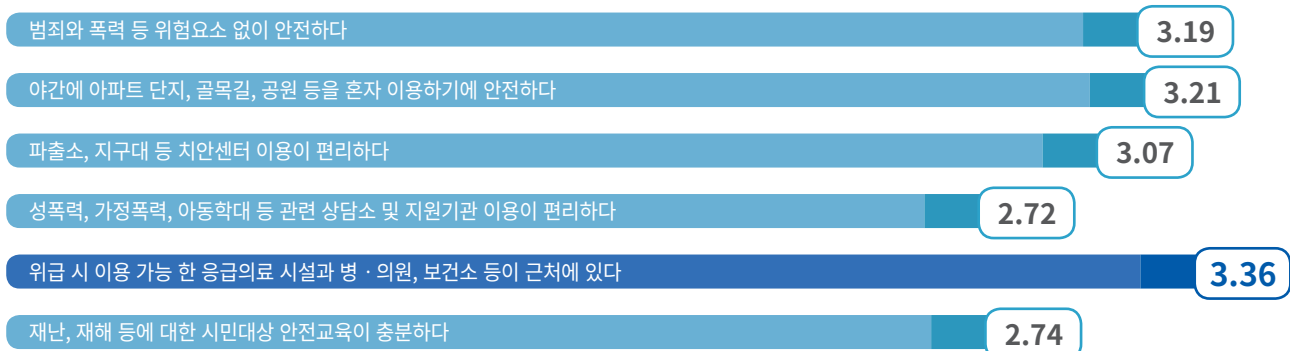


I 안전 환경

- 지역의 안전 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에서 ‘위급 시 이용가능한 응급의료시설과 병·의원, 보건소 등이 근처에 있다’에 대해서 3.36점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반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상담소 및 지원기관 이용이 편리하다’의 항목에 대해서는 2.72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I 문화 환경

- 지역의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 2개 항목 모두 평균 3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I 공동체 형성 환경

-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울산시민의 만족도에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의 항목에서 2.5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공동체 형성 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이웃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다

2.78

공동 관심사로 묶인 지역사회 내 공동체에 속해 있다

2.65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55

마을마다 공동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2.64

지역서비스에 대한 공공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2.67

②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울산시민의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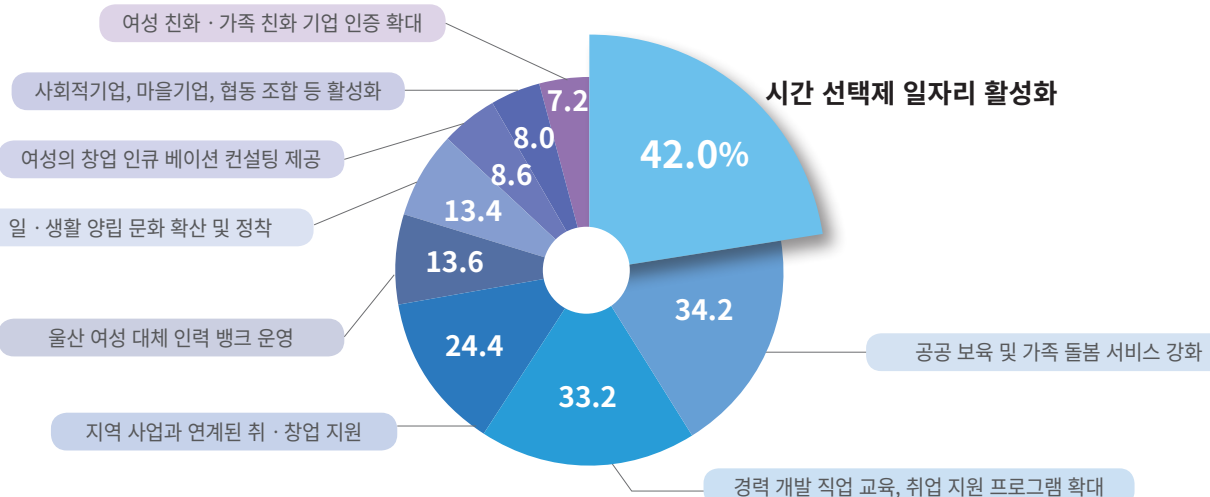
- 울산시민들은 어떤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에 따른 주요 정책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안전한 도시', '편리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 '일·생활 양립 환경 조성', '돌봄 환경 조성', '돌봄 공동체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것임

I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9개의 주요 정책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의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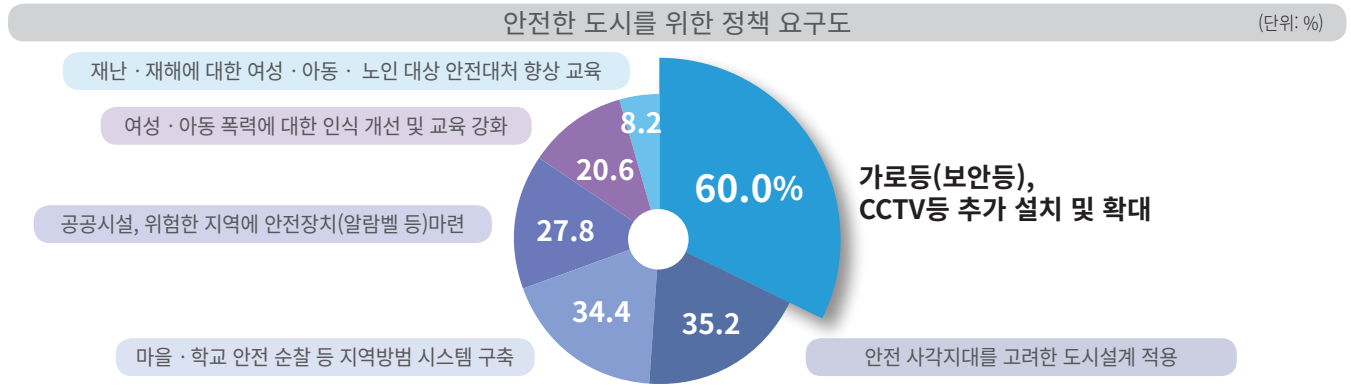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관련 정책 요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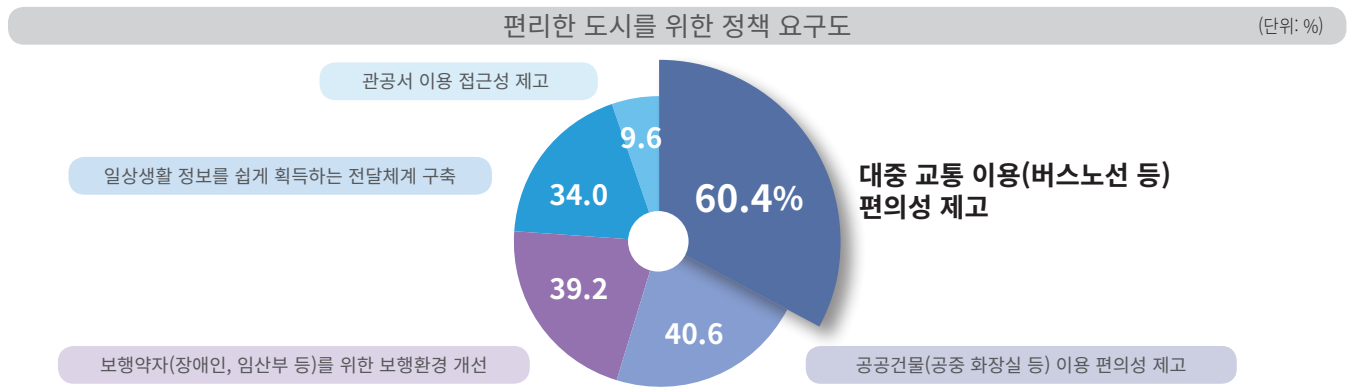
I 안전한 도시

- 지역사회의 안전이 증진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6개 주요 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고, ‘가로등(보안등), CCTV 추가 설치 및 확대’에 대한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사각지대를 고려한 도시설계 적용’ 35.2%, ‘마을·학교 안전순찰 등 지역방법 시스템 구축’ 34.4%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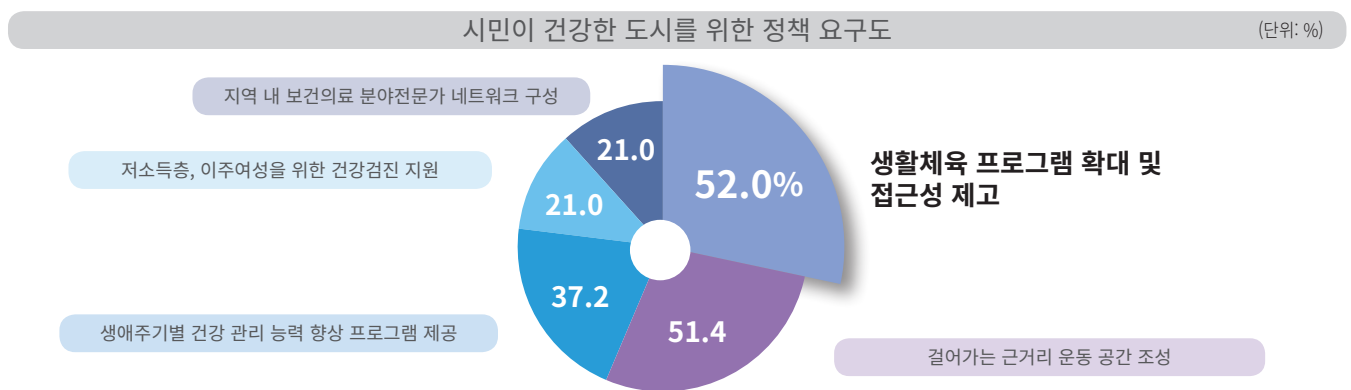
I 편리한 도시

- 지역사회가 편리한 도시환경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중 교통 이용(버스 노선 등) 편의성 제고’가 60.4%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공공건물(공중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제고’ 40.6%, ‘보행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39.2% 순으로 나타남



I 시민이 건강한 도시

- 시민이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접근성 제고’가 52.0%, ‘걸어가는 근거리 운동 공간 조성’이 5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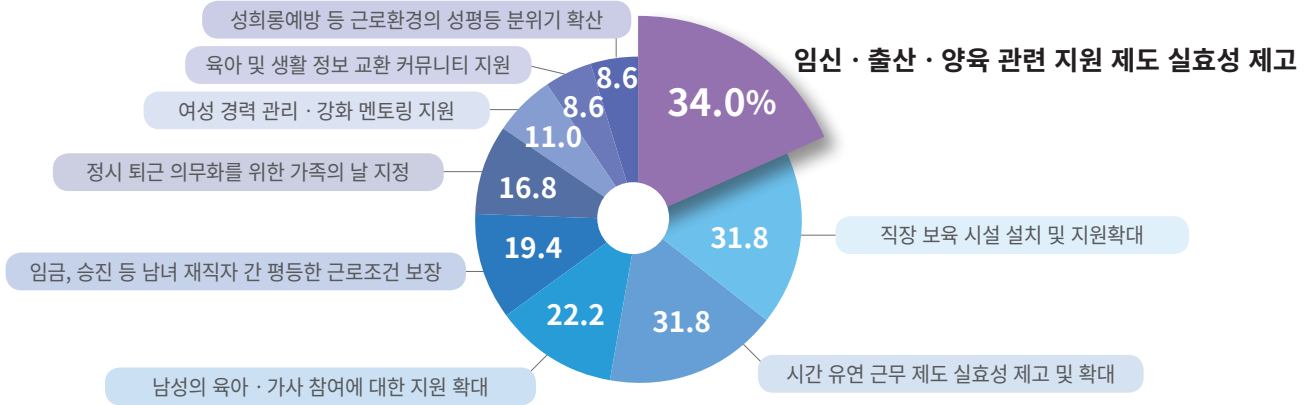


일·생활양립 환경 조성

- 울산시민들의 일·생활양립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임신·출산 양육 관련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확대’와 ‘시간유연근무제도 실효성 제고 및 확대’가 각각 31.8%의 응답을 보임

일·생활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요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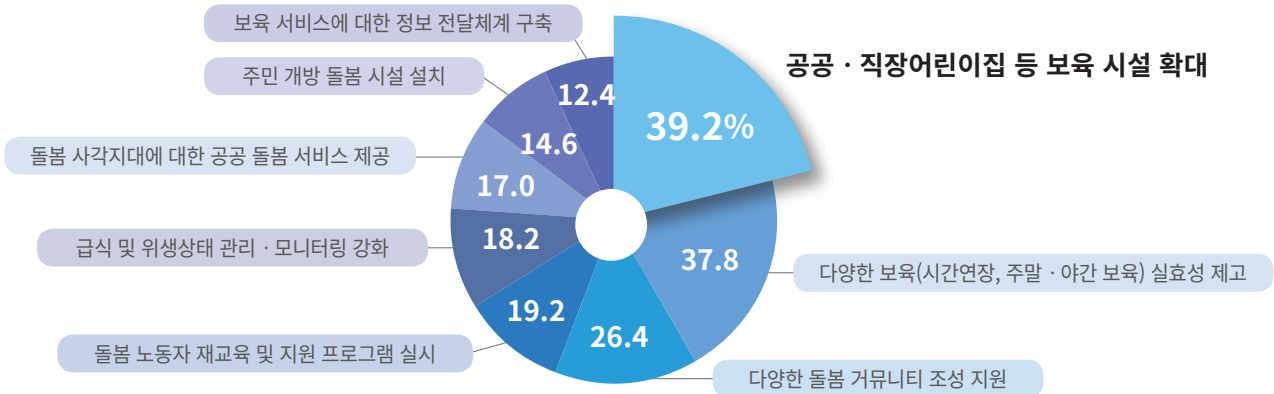


돌봄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돌봄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가 3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보육(시간연장, 주말야간 보육) 실효성 제고’가 37.8%, ‘다양한 돌봄 커뮤니티 조성지원’ 26.4% 순으로 나타남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요구도

(단위: %)



돌봄 공동체 조성

- 지역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돌봄 공동체를 위한 지역 주민 소통공간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합 주민문화 센터 조성’ 34.0%, ‘지역 돌봄 학습모임 운영’ 32.8%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성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로는 ‘지역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활성화’ 28.6%, ‘단체활동, 자원활동 등 여성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이 28.0% 순으로 나타남

③ 시민체감형 울산시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울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조사 등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에 따른 울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